



平山申氏宗報

(0455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 평산신씨대종중
TEL : 02-776-6111, 6151, 7978 · FAX : 02-776-7990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 E-메일: pyongsan777@naver.com

춘 천 묘 소 033-243-2076
표 충 재 053-985-1330
용 산 단 010-8666-3662
덕 양 서 원 010-3166-2288



발 행 인 신 철 수
편 집 인 신 현 기
인 쇄 인 송 은 하



신년사 (新年辭)



철수(澈秀) 대종중 회장

경애(敬愛)하는 평산신씨(平山申氏) 종원(宗員) 여러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4년(甲辰年)이 가고 2025년(乙巳年)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70만 종원 여러분의 가정(家庭)에 건강(健康)과 행복(幸福)이 충만(充滿)하시기를 기원(祈願)드리며 삼가 새해 인사(人事)드립니다.

또한 우리 평산신씨대종중을 위하여 협조(協助)해 주시고 격려(激勵)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感謝)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종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적극적(積極的)인 성원(聲援)과 아낌없는 지도편달(指導鞭達)에 힘입어 무사히 갑진년(甲辰年)을 마무리할 수 있었기에 다시 한 번 진심(真心)으로 감사(感謝)를 드립니다.

제가 대종중 회장으로서의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는 우리 평산신씨종중은 위왕대사(爲王代死)로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충절(忠節)로 빛나는 장절공(壯節公)의 후예(後裔)로서 그 고귀(高貴)한 얼이 영원(永遠)히 자자손손(子子孫孫)에게 전승(傳承)되도록 최선(最善)의 노력(努力)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聲援)에 보답(報答)하는 길은 오로지 초지일관(初志一貫) 사심(私心)없이 성실(誠實)한 자세로 반드시 원칙(原則)을 지켜서 투명(透明)하고 공정(公正)하게 대종중을 운영(運營)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우리 대종중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努力)하고 있습니다.

평산신씨(平山申氏) 종원(宗員) 여러분!

선조님들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더욱 빛나게 하고, 종중을 투명(透明)하고 정의(正義)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원님들의 많은 관심(關心)과 적극적인 참여(參與)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힘든 일을 함께 하고 어려운 일을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 하셔서 평산인(平山人)의 자긍심(自矜心)으로 서로 협력(協力)하고 배려(配慮)해서 보다 더 화목(和睦)하고 힘차게 발전(發展)하는 우리 평산신씨대종중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산신씨(平山申氏) 종원(宗員) 여러분!

2025년(乙巳年) 새해에는 건강(健康)과 행복(幸福)이 가득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기를 기원(祈願)드립니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세요. 감사(感謝)합니다.

2025년(乙巳年) 元旦

평산신씨대종중 회장 철 수 拜上

2025년 대종중 신년인사회



2025년(乙巳年) 1월 8일(수요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수표로에 위치한 한일옥에서 철수(澈秀) 회장과 갑식(甲湜)·길순(吉淳) 명예회장, 흥균(興均)·

선철(璇澈)·동진(東振) 고문, 그리고 상임이사와 분과위원회 위원 등 41명이 참석하여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철수 회장은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참석한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기를 축원드린다. 지난 2024년을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나라 안팎으로 피부에 절실히 와 닿는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평산신씨대종중은 여러분들이 보내준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갑진년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올해도 우리 평산신씨대종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대종중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종중을 투명하고 정의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힘든 일을 함께하고 어려운 일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며 서로 협력하고 배려해서 보다 더 화목하고 힘차게 발전하는 우리 평산신씨대종중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인사하였다.

그리고, 신임 대종중 문화국장으로 임명된 현기(鉉基 정언공파 33세손) 宗을 소개하고, 참석한 명예회장과 고문의 인사와 덕담이 이어진 후, 기념떡 컷팅을 진행하였다.

2025년 신년인사회는 평산신씨 전체 종원과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대종중이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갑식(甲湜) 명예회장의 건배사와 함께 참석자 전원이 뜻을 모아 우렁차게 건배를 하고 오찬을 가졌다. 화기애애하게 1시간여 진행된 오찬을 마친 후, 참석자들에게는 철수(澈秀) 회장이 사비(私費)로 준비한 기념타월과 대종중에서 준비한 떡이 증정되었다.

신승검 장군 묘역 해맞이 행사

강원도화수회(회장 大秀)는 2025년 1월 1일 춘천시 서면 신승검로 272-21의 신승검 장군 묘역에서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다짐하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새해 첫날 해돋이는 무안비행장 사고의 국가에도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희생자들에 대해 묵념하고, 행사



는 축소하여 해맞이를 조용히 진행하였다. 그러나 참가자들에게는 2025년 활기찬 새 희망을 품게 하고, 차와 떡국을 함께 나눔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게 하는 소원지 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행사 떡국은 방동리1리 마을 노인회에서 조리함으로써 신승검 장군 묘역에서 맞는 해맞이 행사는 마을 주민과 함께 하여 그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외지 방문객 500여 명이 방문하여 해가 뜨는 하늘을 향해 소원을 빌고, 각자가 한 해의 마음속 바람을 다짐하였다. 또 같이 참가한 가족은 물론 이웃들과도 정겹게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훈훈한 기운이 서면 방동리에 감도는 한때였다.

파종중 · 화수회 소식

현령공파종중 향사 봉행 및 총회

2024년 11월 1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547에서 파조(諱鑑)의 갑진년 향사(享祀)를 봉행하였다.

청명한 날씨에 올해도 예년과 같이, 호균(豪均) 회장이 정성들여 준비한 제수와 함께 초헌관 대의(김포), 아헌관 호균(인천), 종헌관 언기(안산), 대축 호균 회장, 집사 기철 宗으로 분정, 10여명의 종원들이지만 뜻깊은 추향사를 봉행하였다.

향사를 마치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업무보고, 감사보고, 기타사항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한 후, 언기(彦琦) 총무는 “종원님들의 고령화로 시제에 참여하는 종원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균(豪均) 회장]

고 당부하였고, 언국 감사는 “종원의 참석이 힘들수록 재정이 어렵지만 참석하는 종원들이라도 협조하기를 당부한다”고 부탁하였다.

호균(豪均) 회장은 “올해도 시제에 잊지 않고 참석하신 종원님께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렵지만 힘이 다할 때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인사에 대신하였다.

사간공파 파조(諱 浩) 향사 봉행



[동하(東夏) 회장]

사간공파종중(회장 東夏)은 2024년 11월 5일(음력 10월 5일)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670에 위치한 묘역(연천군 향토문화재 제15호)에서 향사를 봉행하였다.

고려말 조선 초기 문신이었던 사간공(諱 浩)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역성혁명에 비분을 느껴 평산에 은거하며 불사이군의 충절로 생을 마쳤다. (문화재 안내문 참조)

사전 행사로 재실 마당에서 동하(東夏) 회장의 주관으로 참석한 동은(東銀) 대종중고문 등 내빈 및 모

든 종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동하(東夏) 회장이 지난 1년간의 종중현황 설명과 재실 주자장 확장공사를 년내 완공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매년 향사를 봉행할 것을 약속했다.

동훈 집례의 주관으로 현관 및 제집사 분정을 공표하고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초현관 영남(관수당종중), 아현관 동일(매곡종중), 종현관 상섭(옥포종중), 집례 동훈·동복, 대축 원섭(매곡종중), 알자 현구, 진설 동국, 봉향 선철, 봉로 명곤, 봉작 동일, 전작 재철, 사준 찬섭 등이 130여명의 참제자들과 함께 경건하게 향사를 봉행하였다.

[사간공 향사 헌성금·추모화환]

■ 헌성금

단위 : 만원

성명	금액	비고	성명	금액	비고
신동하	50	종중회장	순천공종중	10	홍천
신영남	100	초현관관수당종중	신덕순	10	
신동일	30	아현관매곡종중	신동복	10	남원
신상섭	30	종현관옥포종중	신동은	10	춘천
매곡문중	50	대구	신득철	10	용인
구룡종중	30		신만복	10	
신동국	30		신상길	10	대구
신옥균	30	진천	신상돈	10	
신중식	30	외동문중회장	신성균	10	
신현빈	30		신원섭	10	매곡
한림공종중	30	세종	신유섭	10	관수당종중
경렬공종중	20	가평	신장용	10	일산
신상익	20	국수리정평회	신재준	10	
남강공종중	20		신현관	10	세종한림공회장
논곡종중	20	포항	이천중추공	10	회장신홍섭
신석철	20	분당	신희철	10	정읍
신성삼	20	광주	찬성공종중	10	
신장순	20	서울	파주장단종중	10	회장신동운
신창섭	20		신광균	5	진천
신현균	20	서울	신광철	5	용인
신호철	20		신덕철	5	가평동막
양주참의공종중	20	석희조담양도림	신동건	5	대구
여주덕천공종중	20	여주본두리	신동한	5	포항
옥포종중	20	대구	신영철	5	정읍
양주참의공종중	20		신직현	5	
충경공종중	20	회장신동곤	신현목	5	춘천
표충재종중	20		신현전	5	정읍
홍립공문중	20		신현중	5	정읍
동막현자종중	10	신동훈			
동중추공종중	10	정읍			
소계	800			230	
합계			1,030		

■ 추모 화환

평산신씨대종중 회장 신철수	표충재종중 회장 신동선
용산단종중 회장 신용환	장군단 회장 신동언
대구경북 화수회장 신동하	

사간공파종중 정기총회 개최

사간공파종중(회장 東夏)은 2024년 10월 15일, 재실인 진산재(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노로 193번길 130)에서 총원 31명중 24명(의장위임 포함)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업무 경과보고 및 감사보고를 마치고, 제1호의안 2023년도 회계결산 심의의 건(~24.7.31), 제2호의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24.8.1~25.7.31), 제3호의안 파조 향사 헌관 선정의 건(초헌관-영남 아헌관-동일 중헌관-상설 집례-동훈·동복 대축-원섭), 제4호의안 지번 670-2 지목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등기후 2년 이내 지목변경 완료 필요하여 함) 등을 토론 후 폐회하였다.

진사공파 파조(派祖) 시제 봉행



[표균(彪均) 회장]

진사공파종중(회장 彪均)은 2024년 11월 1일(음력 10월 1일) 경상북도 예천 선조 묘소에서 시제를 봉행하였다. 당일 가랑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총 열일곱

명의 종원들이 본 시제에 참석하였다.

오전 10시 정성스럽게 마련한 제물로 예천군 은풍면에 위치한 13세 은산백 선조의 묘소를 시작으로 호명면의 15세 진사공 선조 및 백전리의 16세에서 20

세까지의 선조들 묘소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시제를 봉행하였다.

지난 3월 총회 때 진사공 묘소 앞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종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자는 안건이 채택되어 지난 4월 7일에 정비를 실시하였다. 주차공간 확장 공사가 완료되어 이번 시제부터는 종원들이 넉넉한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진사공 선조 묘소도 동시에 정비하여 후손으로서 뿌듯함을 함께 나눴다.

점심식사 시간에는 예천축협에서 오랜만에 만난 종원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고 표균(彪均) 회장은 대종중의 운영 진행현황을 종원들과 공유하였다.

이어 백전리 선조 묘소에서 시제 봉행 후 음복으로 올해 시제를 마무리하였다.

2025년 용산단종중 임원 신년인사회



[용환(龍煥) 회장]

2025년 1월 11일(토) 평산신씨 시조 탄생 유적지인 용산단 임원의 신년 인사회가 혹한의 추위가 잠시 비껴준 덕택에 용산재 앞마당에 있는 모충재 마루에서 따사로운 햇볕을 가슴에 안고 각 지역에서 참석해

준 임원과 종원 들에 의해 거행되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용환(龍煥)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참석해 준 임원 들의 소개를 할 때마다 참석자 전원이 큰 박수로 감사와 환영을 표했다.

이어서 2024년 10월 20일 용산단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중규에 의거하여 위촉된 부회장, 상임이사, 자문위원의 위촉장을 수여한 후, 현종·동립 고문의

덕담을 시작으로 함께한 전체 고문과 자문위원들의 한결 같은 조언은 전국 70만 종원의 건강과 2025년 신승겸장군 탄신기념 “승모제전”을 지난해를 교훈 삼아 전국의 혈족이 더 많이 함께하여 시조님의 탄신을 경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1부 행사를 마치고 오찬장인 곡성군 석곡면의 우리 혈족이 운영하고 있는 대항강한우로 자리를 옮겨 케익 커팅식에 용환 회장과 현종·동립 고문, 승철 부회장이 함께 해 주었으며 전국 70만 혈족의 안녕과 시조님의 음덕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린다는 구호에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오찬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며 2025년 신년 인사회를 마쳤다.

문화공파 군수공종중 향사 봉행



문화공파 군수군종중(회장 재현)은 2024년 12월 2일 서울·예천·창원 서곡종중 종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숙권(叔權 17세손) 할아버지와 명중(命仲 18세손) 할아버지 두 분의 묘제를 정성껏 올렸다. 이 자리에는 처음으로 대사성공종중 영현(永鉉) 회장이 아헌관으로 참제하여 향사를 빛나게 해 주었으며 이후, 모두가 나들목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2024년도 군수공종중 총회를 개최하였다.

문화공파 예천종중 결성



[종현 회장]

문화공파 군수군종중(회장 재현)의 지파인 예천종중은 성(誠 19세손) 할아버지와 효선(孝先 20세손) 할아버지를 모시는 종중으로, 그동안 종중의 규모를 갖추지 못해 왔으나 2024년 12월 20일 용문면 좋은연식당에 20여명의 종원이 모여 회의를 통해 규모있

는 예천종중을 탄생시켰다. 이날 회장에 종현(사진), 총무에 철호 宗이 선출되었다.

종원동정

《2024 한국을 빛낸 봉사 리더》에 선정되다

신정순 법무사 (제정공파종중 34세손)



한 장의 판결문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뒤흔드는 폭풍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한숨 돌릴 피난처가 된다. 하지만 정순(正淳) 법무사는 늘 “진정한 승리는 법정 밖에 있다”고 말한다. 50여

년간 법조계에 몸담아 2만여 건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서민들의 곁을 지켜온 그는 차가운 법조문 사이에서 따뜻한 정(情)을 피워내는 법률가다.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집 잃을 뻔한 가정에 희망을 선물하고, 돈 때문에 갈라선 형제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일, 그렇게 그는 법이 단순한 심판자가 아닌, 우리 삶을 보듬는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왔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법률 자문에 힘쓰는 정순 법무사는 온정의 봉사 정신으로 나눔의 미덕을 실천해 사회에 귀감이 된다.

이에 “뉴스리포트”紙가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2024 한국을 빛낸 봉사 리더”로 선정, 정순 법무사의 가치있는 행보를 조명하였다.

1995년부터 시작된 무료법률상담이 어느새 30년이 지났다. 세월과 함께 쌓인 서류들, 2만건이 넘는 법률상담의 기록에는 의뢰인들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각자 다양한 사연들을 가진다. 법률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무료상담을 시작한 그는 한 번도 무료상담을 거절하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수많은 의뢰인이 찾아 오지만,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법정 안팎에서의 봉사는 그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1998년부터 시작된 잠전라이온스클럽 활

동은 그의 봉사 정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잠전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 강원도 양양의 산불 재해 현장을 찾아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험을 했으며, 서울시 송파구 관내의 양로원과 저소득층 지원에도 발 벗고 나서면서 임기중에 2억원 상당의 잠전라이온스 회관 구축은 그의 큰 자부심이다. 또 캄보디아 오지에 초등학교 3개 교실을 건립한 일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 온 봉사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제53회 법의날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며, 2018년 법조협회 주최의 제17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 “법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흔히 정의와 공정을 떠올린다. 하지만 정순 법무사는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 왔던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준다. 바로 “관계회복”이다. 30년 가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민들의 곁을 지켜온 그의 발자취는 법이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르는 칼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리포트 2024년 12월호 발췌]

K방산 신화 ‘천무’ 개발을 이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현우(鉉宇, 진사공파종중 33世孫)



현우는 1963년 경북 상주에서 아버지 우균(佑均), 전주 이정훈(全州, 李貞勳) 사이에 3男 1女 중 삼남으로 태어나 슬하에 아들 2명(瀋漢, 智珉)을 두고 있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 한화에 입사해

38년간 방산분야에서 일해왔다. 방산전략실장, 한화테크원항공방산부문 대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를 거쳐 전략부분 사장을 맡고 있다.

K 방산 수출을 이끌고 있는 ‘천무’는 200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당시 사거리가 최대 6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가 집중 배치된 것에 비해 대한민국의 주력 무기는 자체 개

발한 다연장로켓 ‘구룡’으로 사거리가 40km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더욱더 구룡은 목표물을 추격할 수 있는 정밀도도 떨어졌다. 결국 사거리도 늘려야 하고 정밀도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다. 당시 한화는 군이 이런 무기를 미국에서 살지, 아니면 독자 개발할지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천무개발에 뛰어들었다.

천무는 땅에서 쏘 땅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런 지상 시험장이 없어 2006년 충남 태안에서 바다를 향해 쏘는 첫 시험을 하였다. 수많은 실패 과정을 겪으면서 2012년 이스라엘 시험장에서 성공을 확인하였고, 2015년 한화는 천무를 실전배치 후 글로벌 세일즈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중동에서 첫 수출 계약을 성공하였고 이후 유럽 폴란드에 7조 2천억원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후 천무는 타 유럽국가와 동남아시아에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방산 전시회에 부스를 차릴 때마다 세계 각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우(鉉宇) 사장을 주목하는 K방산 신화의 주역을 맡고 있다.

기고 (寄稿)

아름다운 광주 無等山國立公園

대중중감사 군수공파회장 권채 34세 (법무사)

1.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이 사랑하는 무등산은 해발 1,187m 높이에 4,012종 생물자원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지역민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산이다. 의향, 예향, 미향으로 특징되는 광주의 뿌리가 무등산이기 때문이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2005. 12. 16.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되고, 2013. 3. 4. 무등산국립공원으로 대한민국 제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 12.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고 파리유네스코본부에서 2018. 4. 12. 무등산권의 세계지질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광주·전남 브랜드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크다. 광주시와 담양군

전체와 화순군 일부를 포함한 1천51.36km²의 면적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세계지질공원내에는 서석대, 입석대, 규봉암, 원효사, 중심사, 약사사, 화순 공룡화석지, 운주사, 적벽 등 20여 곳의 지질명소가 있다. 역사문화 명소로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담양죽녹원 등 42곳이 포함되었다. 힐링과 건강을 생각해 무등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더욱 지역민들은 무등산을 평화로운 명산으로 보존하고 있다.

2. 광주의 무등산 국립공원은 광주시민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삶의 터전이고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무등산 산자락을 힐링과 건강을 생각하며 걸어가면 신록이 우거진 나무들과 이름 모를 들꽃들이 우리를 반가워하며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 속에 희망을 여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새들의 소리, 건강, 생명의 소리가 들리고, 삶을 이끄는 힘이 여기에 있다.

무등산 천왕봉의 높이가 해발 1,187m로 정상에서 보면 한라산과 거제도가 보이고 어디에서 보나 모나지 않고 둥그스름한 어머니의 품안처럼 넉넉하고 아름다운 무등산을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꿈꾸는 광주시민들과 전국 관광객들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산행하는 수만명의 발걸음은 사철 어느 때도 이곳을 찾아오고, 무등산 원효사에서 동북쪽으로 약 2km를 내려오면 광주호가 있고 무등산자락 담양군 남면 지곡리 성산에서 조선왕조 13대 명종 17년 송강 정철(松江 鄭澈)(1562년)은 낙향하여 성산별곡(星山別曲)을 식영정(息影亭)에서 읊은 가사문학대가의 산실과 11대 중종때 양산보(梁山甫)가 건립한 조경정원인 담양 소쇄원(瀟灑園)이 있어 역사문화자원이 분포되어있는 유명한 곳이고 광주시는 무등산의 역사와 자연문화 등을 담은 “국립 무등산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3. 무등산 주상절리대(無等山 柱狀節理帶) 중생대 백악기(8천700만년전)에 발생한 화산활동의 산물로서 분출된 용암이 지표면에서 식으면서 수직으로 균열이 생겨 암괴나 지층에서 기둥모양의 절리대가 지표에 대해 수직으로 형

성되어 있는 형태, 석영안산암으로 만들어진 무등산 주상절리대인 입석대와 서석대는 오랜 세월동안의 물리적 풍화작용에 의해 기둥과 병풍모양을 닮은 무등산의 명물이다. 신이 어딘가에 쓰려고 돌기둥을 깎아 한쪽에 쌓아놓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무등산 주상절리대인 입석대와 서석대, 광석대를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규봉 광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천연 바위예술품이다. 입석대는 5~8각, 둘레는 6~7m, 높이 10여m의 독립된 돌기둥 수십개가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아 있으며, 서석대는 용암이 돌병풍 모양으로 동서로 길게 발달해 있어 경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학술적인 가치도 매우 높다. 그리고 돌기둥 하나의 크기가 지금까지 남한에서 보고된 것 중 최대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석대의 모습은 장엄하고 신비스러운 자연의 비경이다.

광주시는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등재신청을 하였으며, 무등산 자락 숲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추스르고 지키는 편백나무 군락지 3곳에 깨끗한 산소와 나무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향이 많이 나오는 건강의 숲 힐링공간 “산소공원”을 만들어 습터를 조성하고, 또한 초가을쯤이면 5kg에 달하는 무등산 수박은 당도가 높아 먹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 여름의 늦더위를 쫓는다.

4. 원효사에서 무등산 정상에 솟아오른 달을 바라보는 운치와 저녁 어스름 사이로 들려오는 원효사의 종소리, 서석대에 감겨드는 뭉게구름, 장쾌하게 쏟아 내리는 원효폭포의 물줄기는 원효사를 중심으로 낮과 밤, 사계절과 긴 세월동안 무등산을 빛내주고 있는 원효팔경이 있고, 3월 중순부터 무등산 계곡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한 진달래꽃이 능선을 따라 뻗어 올라가면 4월에는 입석대와 서석대에 이르는 장관이 펼쳐지고, 진달래가 지고 나면 붉은 철쭉꽃이 무등산 허리까지 올라가 5월까지 온 산을 붉게 물들인다.

5. 무등산의 가을은 단풍이 붉게 물들면서 넓은 억새평원이 펼쳐지고, 장불재와 규봉으

로 가는 능선은 억새풀 집단군락지로 아름다운 억새는 10월 하순쯤이면 억새가 하얀꽃을 피우기 시작하여 넓은 은빛평원의 찬란한 억새물결은 보는 이에게 감탄을 주고, 겨울이면 해발 800m 이상에는 어김없이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핀 겨울철 설화는 아름다움의 극치이고 천연 예술품이다.

광주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숨쉬고 평화가 공존하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무등산국립공원은 자연을 훼손함이 없이 더 아름답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관리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향곡의 족보 이야기

족보 등재(收單)와 누보(漏譜) 이제는 자신의 책임으로 등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족보에 등재신청하는 것을 수단(收單)이라고 표현한다. 또, 족보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나 그런 의도를 누보(漏譜)라고 한다. 누보(漏譜)는 넓은 의미에서의 족보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등재되거나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요즘과 같이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억울하게 누보(漏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같은 성씨족보의 경우에도 특정 인물들이 족보에 등재되기도 했다가 그 다음번 족보엔 기록이 누락되는 누보가 발생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과거에는 한지(韓紙) 출판하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록하여 올리고 족보를 모셔가지 않을 때는 굳이 자손 내용을 수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필자는 예전의 족보를 '회원보(會員譜)'라고 표현한다. 기록하여 올림 신청을 한 회원들과 그들의 선조들 정보만을 수록해 발간한 것이었다.

이후 중증이 재산이 있는 경우, 기준 족보를 결정하면 그 족보에 있는 자손록은 그대로 실어

주었다. 파보(派譜) 혹은 대동보(大同譜 : 한성씨 본관의 보첩(譜牒)이기에 '족보'라는 표현이 맞지만 이런 족보를 발간하기도 어려웠고, 단합을 위해 '대동보'라는 거창한 의미를 사용)를 기준으로 파보를 만들 때는 이전 파보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모두 수록하고, 대동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을 정해 그렇게 해가는 추세이다.

이제는 인터넷족보 혹은 전자족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종이로 발간하는 책자 족보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전자적으로 족보 자료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쉽게 자신의 족보 내용을 문중의 족보에 기재할 기회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족보에 관한 관심이 부족해 여전히 족보에 기록하여 올림은 가문에 따라 다르지만 작은 성씨일수록 수록률이 높고, 인구가 많은 가문은 25%를 밑도는 수록률을 추정할 수 있다.

광의의 의미가 어쨌든지 족보에 빠진 것이라면, 협의(狹義)의 의미는 각 종중에서 실무를 운영할 때 기준을 삼기에 그 기준은 다양하고 처리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인물을 기준으로 자신이나 부(父) 또는 조부(祖父)부터 족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기도 한다. 이는 족보 등재를 신청할 때의 비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누보자(漏譜者)의 처리 방법도 아예 빼는 경우가 있고, 옛 족보의 기록에는 있으나 신청하지 않으면 이름만 작은 글씨로 처리해 후에 자손들이 찾아서 기록하여 올릴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때도 있다.

평산신씨대종중 홈페이지와 전자대동보를 운영하는 필자의 관점에서 소견을 말한다면, 평산신씨 전자대동보처럼 소자(小字)로라도 이름을 표기하여 향후 자손들이 찾아 기록하여 올릴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족보의 등재와 누락이 예전 호주제 시절에는 호주(戶主)가 호적등본을 발급하면 호주 이하 모든 자손의 정보를 수록할 수 있었으나, 2008년부터 시행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만 발급 가능” 하게 됨으로써 족보발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게 강제함으로써 족보발간에 더욱 커다란 장애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전과 같이 큰아버지를 통해서 혹은 문중을 통해서 족보에 기록하여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인인 자신이 혹은 성인이 아닌 자라도 그 가문의 혈손인 경우는 자신의 공적 서류를 기준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등재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문화 민족인 대한민족의 족보 문화를 계승 보존하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곡(響谷) 김형선은 부안김씨연구소(www.buankim.org)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종종 사업을 바탕으로 1972년 창립한 족보(族譜)와 문집(文集) 발간 전문기업인 대보사(大譜社)의 서울지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책자족보 참여 : 평산신씨, 금천강씨, 충주홍주석씨, 태안박씨, 경주순창설씨, 부안김씨, 예안이씨, 장연노씨, 충주박씨 등

- 홈페이지/인터넷족보 참여 : 평산신씨대중중, 김녕김씨중앙중친회, 연안김씨대중회, 부안김씨연구소, 고령김씨대중회, 상산김씨대중회, 김해향교 등]

지난 호에 이어

문사요람(門事要覽)

이를 관향(貫鄉) 또는 본(本)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동성(同姓)이라 할지라도 동족(同族) 여부(與否)를 가리는 데는 본관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관적(貫籍)이란 본적지(本籍地)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본관의 적지(籍地)란 뜻으로 본관 대신 관적(貫籍)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3).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 국가(國家)에 대한 공훈(功勳)으로 봉군(封君)되었거나 혹은 후손(後孫) 중에 어느 일파(一派)가 다른 지방(地方)에 분거(分居)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지방을 근거로 관적

(貫籍)을 새로이 창설(創設)하게 되어 자동적(自動)으로 분적(分籍)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분적(分籍) 또는 분관(分貫)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창설된 시조(始祖)를 시관조(始貫祖) 혹은 득관조(得貫祖)라 일컫는다.

4). 사관(賜貫)과 사성(賜姓) : 옛날에는 공신(功臣)이나 귀화인(歸化人)에게 포상(褒賞)의 표시로서 국왕으로부터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혹은 이름까지 하사(下賜)하는 일이 있는데 이를 사관(賜貫)이니 사성(賜姓), 또는 사명(賜名)이라 일컫는다.

이는 삼국시대(三國時代) 초부터 있었으나 특히 고려조(高麗朝)에 들어와서 가장 많았는데 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성(賜姓)	시 조 始祖	본래의 성(姓), 명(名)	사성(賜姓) 왕조(王朝)	비 고
영양(英陽) 남씨(南氏)	민 敏	김씨(金氏)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광주(廣州) 안씨(安氏)	방 곽 邦 傑	부(父) : 이원(李瑗)	신라(新羅) 경문왕(景文王)	
순흥(順興) 안씨(安氏)	자 미 子 美	이원(李瑗)의 11세손(世孫)	신라(新羅) 경문왕(景文王)	
죽산(竹山) 안씨(安氏)	방 준 邦 俊	부(父) : 이원(李瑗)	신라(新羅) 경문왕(景文王)	
안동(安東) 권씨(權氏)	행 幸	경주(慶州) 김씨(金氏)	고려(高麗) 태조(太祖)	
경주(慶州) 배씨(裴氏)	현 경 玄 慶	본명(本名) 백옥삼(白玉衫)	고려(高麗) 태조(太祖)	중조(中祖)
면천(沔川) 복씨(卜氏)	지 겸 智 謙	본명(本名) 복사귀(卜沙貴)	고려(高麗) 태조(太祖)	
평산(平山) 신씨(申氏)	송 겸 崇 謙	본명(本名) 능산(能山)	고려(高麗) 태조(太祖)	
충주(忠州) 어씨(魚氏)	중 익 重 翼	충주(忠州) 지씨(池氏)	고려(高麗) 태조(太祖)	
풍양(豐壤) 조씨(趙氏)	맹 孟	본명(本名) 바위(巖)	고려(高麗) 태조(太祖)	로씨(盧氏) 1파(一派)
연안(延安) 차씨(車氏)	효 전 孝 全	문화(文化) 유씨(柳氏)	고려(高麗) 태조(太祖)	
의성(義城) 홍씨(洪氏)	유 儒	본명(本名) 홍술(弘述)	고려(高麗) 태조(太祖)	
일직(一直) 손씨(孫氏)	응 凝	순씨(荀氏)	고려(高麗) 현종(顯宗)	
연안(延安) 인씨(印氏)	후 候	본명(本名) 홀자대(忽刺歹)	고려(高麗) 충렬왕(忠烈王)	
덕수(德水) 장씨(張氏)	순 용 舜 龍	본명(本名) 삼가(三哥)	고려(高麗) 충렬왕(忠烈王)	
수성(隋城) 최씨(崔氏)	영 규 永 奎	안동(安東) 김씨(金氏)	고려(高麗) 충렬왕(忠烈王)	
광주(光州) 이씨(李氏)	순 백 洵 白	경주(慶州)김씨(金氏) 궁예(弓裔)의 후손(後孫)	고려(高麗) 충숙왕(忠肅王)	
예천(醴泉) 최씨(崔氏)	섬 暻	흔씨(昕氏)	고려(高麗)	
청해(靑海) 이씨(李氏)	지 란 之 蘭	본명(本名) 통두란(佟豆蘭)	조선(朝鮮) 태조(太祖)	여진계 발해의 후손
김해(金海) 김씨(金氏)	충 선 忠 善	본명(本名) 사야가(沙也可)	조선(朝鮮) 선조(宣祖)	후금(後金) 일본인
감천(甘泉) 문씨(文氏)	세 광 世 光	경주(慶州) 김씨(金氏)	중국(中國) 송조(宋朝)	
정선(旌善) 문씨(文氏)	림 간 林 幹	전씨(全氏)	중국(中國) 송조(宋朝)	
인천(仁川) 이씨(李氏)	허 겸 許 謙	태인(泰仁) 허씨(許氏)	중국(中國) 당조(唐朝)	

그러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목천현(木川縣) 성씨조(姓氏條)에 보면 반드시 공훈의 표시로만 사성(賜姓)했던 것도 아니다.

고려 태조가 건국 후 목천(木川) 사람들이 자주 반

란(叛亂)을 일으키므로 미움을 사서 그 고을 사람들에게 우(牛), 마(馬), 상(象), 돈(豚), 장(獐)등 짐승의 이름으로 사성하였는데 그 후에 각기 우(于), 상(尙), 돈(頓), 장(張)등으로 변성(變姓)했다는 전설이 있다.

5).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 중시조(中始祖)가 정해짐에 따라 종파(宗派)가 성립(成立)되는 것인데 동족(同族)사이에 종파(宗派)나 파속(派屬)을 밝히는 것은 후손(後孫)들 각자의 혈통적(血統的) 계열(系列)을 분명하게 밝히며 촌수(寸數)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혹 족보(族譜)에 관심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파속쯤은 알고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는 쇠퇴(衰退)했던 가문(家門)을 중흥(中興)시킨 중시조(中始祖)를 중심으로 종파(宗派)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중시조의 직함(職銜) 또는 아호(雅號)에다 『공(公)』자를 붙여서 아래와 같이 파속을 표시한다.

- 정승(政丞)을 지낸 중시조의 종파(宗派)
--- OO상공파(相公派)
- 판서(判書)를 지낸 중시조의 종파(宗派)
--- 판서공파(判書公派)
- 참판(參判)을 지낸 중시조의 종파(宗派)
--- 참판공파(參判公派)
- 정랑(正郎)을 지낸 중시조의 종파(宗派)
--- 정랑공파(正郎公派)
- 진사(進士)가 된 중시조의 종파(宗派)
--- 진사공파(進士公派)
- 아호(雅號)를 표시하는 중시조의 종파(宗派)
--- 아호공파(雅號公派)
- 시호(諡號)를 표시하는 중시조의 종파(宗派)
--- 시호공파(諡號公派)

6). 경파(京派)와 향파(鄉派) : 문중(門中)에 따라 종파(宗派)를 초월(超越)하거나 혹은 동일한 종파 간에도 경파와 향파의 두 계통으로 크게 구분(區分)하는 경우(境遇)가 있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경파란 서울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향파란 시골에서 세거(世居)해 온 일족(一族)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모두 종파(宗派) 이외(以外)에 혈통적(血緣的) 신분(身分)을 밝히는 말로 쓰인다.

7).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 선계(先系)라 함은 시조(始祖) 이전(以前)의 조상(祖上)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란 시조(始祖)로부터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系統 = 血統)의 차례를 말하는 것이다.

8). 선대(先代)와 말손(末孫) : 본래 선대(先代)란 말은 선조(先祖)의 여러 대를 포괄적(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나, 보첩상(譜牒上)의 선대(先代)라 함은 시조(始祖) 이후(以後) 상계(上系)의 조상(祖上)을 총괄적(總括的)으로 일컫는 말인데 이를 선계(先系)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듯하나 이는 잘못된 말이다. 그리고 선대(先代)라는 말에 반(反)해서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손(末孫)이라 하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9). 세(世)와 대(代) : 시조(始祖)로부터 아래로 후손(後孫)을 가리킬 때에는 세(世)를 붙여서 시조(始祖)를 1세(世), 그 아들을 2세(世), 그 손자(孫子)는 3(世)세, 그 증손(曾孫)은 4세(世)가 되며, 위로 선조(先祖)를 말할 때에는 대(代)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後孫)을 가리킬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世孫), 선조(先祖)를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代祖)라 일컫는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세(世)로는 2세(世)이지만 대(代)로는 1대(代)이기 때문에 어느 선조로부터 아래로 세(世)를 따질 때에는 그 선조를 1세로 하고 자기까지 넣어서 몇 세손(世孫)이라 하지만, 위로 치올려 대(代)를 따질 때에는 자기를 뺀 나머지만을 계산해서 몇 대조라 일컫는다. 가령 시조(始祖)의 21세손(世孫)이 되는 사람의 그 시조(始祖)는 20대조(代祖)가 되는 것이며, 어느 선조(先祖)의 19세손(世孫)이 되는 사람의 그 선조(先祖)는 18대조(代祖)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후손(後孫)을 가리킬 때에도 선조(先祖)의 경우처럼 대(代)를 붙여서 몇 대손(代孫)이라고 말하는 수가 있지만 선조(先祖)를 말할 때에 몇 세조(世祖)라고 일컫는 것은 시조(始祖)로부터 몇 세손(世孫)에 해당하는 선조(先祖)라는 뜻이다.

조손(祖孫)의 호칭(呼稱)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6 세	7 세
현 조 玄祖	고 조 高祖	증 조 曾祖	조 祖	부 父	자 自己	자 子
					—	二
5대조 五代祖	4대조 四代祖	3대조 三代祖	二	一	(0)	
8 세	9 세	10 세	11 세	12 세	13 세	14 세
손 孫	증 손 曾孫	현 손 玄孫	내 손 來孫	곤 손 昆孫	영 손 仍孫	운 손 雲孫
三	4세손 四世孫	5세손 五世孫	6세손 六世孫	7세손 七世孫	8세손 八世孫	9세손 九世孫

10).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 방조(傍祖)란 6대조 이상의 형제(兄弟)를 일컫는 말이고, 족조(族祖)란 방계(傍系) 무복지조(無服之祖)의 칭호(稱號)이다.

11).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 종손(宗孫)이란 한 종파(宗派)의 만손자를 일컫는 말이고, 장손(長孫)이란 종가(宗家)가 아닌 차자손(次子孫)집의 만손자를 일컫는 말이며 대종가(大宗家)의 만손자를 대종손(大宗孫)이라 일컫는다.

12).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子孫)을 일컫는 말이며, 사손(祀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준말로써, 조상(祖上)의 제사(祭祀)를 받드는 자손(子孫)을 일컫는 말이다.

13). 후사(後嗣)와 양자(養子) : 후사(後嗣)란 뒤를 잇는다는 후승(後承)의 뜻으로서,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子孫)을 뜻하는 말인데 만약 계대(系代)를 이을 후사(後嗣)가 없을 경우에는 무후(无后) 양자(養子)로 출계(出系)하였을 때에는 출후(出后) 서열(庶孽)로서 입적(入嫡)되었을 경우에는 승적(承嫡), 그리고 후사(後嗣)가 확실치 않아 알수 없을 때에는 후불전(後不傳) 등의 사유를 보첩의 명(名), 휘자(諱字) 밑에 작은 글자로 표시한다.

그런데, 후사(後嗣)가 없는 사람에게 양자(養子)로서 계대(系代)를 승계(承繼)하려면 요즈음은 관할 법원(法院)에 청원(請願)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예조(禮曹)에다 아무를 양자(養子)로 입양(入養)하겠다고 청원하여야 하는데, 자손(子孫)은 하늘이 점지(點指)하는 것이라 하여 예조에서 입안(立案)한 문서를 동지사(冬至使)가 중국(中國) 천자(天子)에게 가져가면 천자는 이를 하늘에 고유(告由) 한 다음 이를 다시 동지사가 가지고 귀국(歸國)하면 예조에서는 이를 허가(許可)하게 되는 것이다.

정조(正祖)때 왕명으로 김치인(金致仁) 등이 편찬(編纂)한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의하면 『처첩구무자녀(妻妾俱無子女)면 취동성지자(取同姓支子)로 위후(爲后)』라 했다. 이는 처첩(妻妾)간에 모두 자녀(子女)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同姓), 즉 혈족(血族)의 맏아들이 아닌 차자(次子)로서 대를 잇게 한다는 말이니 맏아들은 양자(養子)로 출계(出系)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양자의 실태를 살펴보면 양가(養家)에 들

어가서 실제로 양부모(養父母)를 봉양(奉養)하는 양자는 대개 장자(長子)가 아닌 지자(支子)가 출계(出系)하였으며 생가(生家)에 살면서 제사만을 받들며 대를 잇는 형식적인 양자는 지자(支子)에 한정되지 않고 큰집의 후사(後嗣)를 위하여 장자(長子)도 출계한 예가 적지 않은데 이는 모두 정식으로 관(官)의 허가(許可)를 받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양자를 예조에 청원할 때에 양부(養父)나 양모(養母)될 사람이 생존(生存)해 있으면 원칙적(原則的)으로 그들이 청원하게 되지만 만약에 그들이 모두 생존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문중(門中)의 문장(門長)이 이를 청원하게 되는데 양자에는 다음 4가지 종류가 있다.

① 수양자(收養子) : 3세(歲) 이전에 입양(入養)하는 양자.

② 시양자(侍養子) : 3세(歲) 이후에 입양(入養)하는 양자.

③ 사후양자(死後養子) : 양부모(養父母)가 구몰(俱沒)한 후에 입후(入後)하는 양자.

④ 백골양자(白骨養子) : 양자 자신(自身)이 죽은 후에 입후하는 양자.

14). 서출(庶出)과 승적(承嫡) : 서출이란 서열(庶孽), 즉 첩(妾)의 자손을 일컫는 말인데 조선시대에는 소위 양반출신이라 할지라도 서열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회적 제한이 있어서 문과(文科)의 응시(應試)가 금지되었으며 무과(武科)나 잡과(雜科), 즉 역과(譯科), 의과(醫科), 율과(律科) 등에 한하여 응시, 등용되었었다.

그러나 현직(顯職) 문, 무관(文, 武官)의 『양첩(良妾) : 양민(良民) 출신(出身)의 첩(妾)』의 자손(子孫)은 정3품, 천첩(賤妾) 즉 기생이나 노비(奴婢)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만 등용(登用)되었으며 정조(正祖), 순조(純祖), 철종(哲宗)때에 와서 차츰 완화되었다가 고종(高宗) 31년(서기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서열(庶孽)에 대한 차별(差別)이 철폐(撤廢)되었다.

15). 함자(銜字)와 휘자(諱字) : 현재 우리는 대개 호적명(戶籍名) 하나로서 모든 것에 통용(通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예전 풍습(風習)에 의한 인명(人名)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에 쓰는 아명(兒名)과 관례(冠禮)를 치르고 나면 관명(冠名) 즉 자(字), 그리고 보첩(譜牒)에 올리는 행명(行名), 그밖에 따로 행세

(行世)하는 별호(別號) 등이 있다.

그런데, 관명(冠名 : 字)은 관례『(冠禮 : 성년식(成年式))』 때에 미리 빈『(賓 : 주례자(主禮者))』을 택하여 예식의 주재(主宰)를 청탁해 두면 그는 이 의식을 주재함과 아울러 자(字)를 지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웃어른의 이름자를 말할 때에 있어 생존자(生存者)에 대해서는 함자(銜字)라고 하며 비생존자(非生存者)에 대해서는 휘자(諱字)라고 하거나, 이름자를 입으로 옮길 때에도 웃어른의 이름자에 대해서는 함자(銜字)이건, 휘자(諱字)이건을 막론하고 글자 사이마다 「자(字)」자를 넣어서 읽거나 글자를 풀어 읽어서 말하기도 한다.

예(例) : 숭겸(崇謙) = 숭(崇)字, 겸(謙)字, 또는, 높을 숭(崇), 겸손할 겸(謙)字입니다, 라고 한다.

16). 존칭접미사(尊稱接尾辭) : 우리가 존장(尊丈)은 물론, 평교간(平交間)일지라도 상대방을 존대(尊待)할 경우에는 아무 선생(先生), 아무 씨(氏), 혹은 아무 옹(翁) 따위의 존칭사(尊稱辭)를 쓰는데 이는 그 경우에 따라 쓰이는 곳이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다.

①, 선생(先生) : 성(姓), 성명(姓名), 또는 별호(別號)뒤에 붙여서 극존칭사로 쓰인다.

②, 공(公) : 남자의 성(姓)이나 별호(別號), 시호(諡號), 또는 함자(銜字)뒤에 붙여서 선생(先生)의 버금가는 존칭사로 쓰인다.

③, 옹(翁) : 남자(男子) 노인(老人)의 성(姓), 또는 성명(姓名)뒤에 붙여 높임말로 쓰인다.

④, 장(丈) : 손윗 남자의 별호(別號) 뒤에 붙여서 어른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 존장(尊丈), 노인장(老人丈), 형장(兄丈), 사장(查丈) 등으로도 쓰인다.

⑤, 씨(氏) : 성(姓), 성명(姓名), 또는 이름 아래 붙이며 별호(別號)나 예명(藝名)에는 쓰지 아니한다.

⑥, 님(任) : 직함(職銜), 또는 친족(親族)의 호칭(呼稱) 뒤에 붙여 높임말로 쓰인다.

예 : 장관님(長官任), 아버지님, 형님(兄任).

⑦, 군(君) : 손아래 남자의 성(姓), 또는 성명(姓名) 뒤에 붙인다.

⑧, 여사(女史) : 부인(婦人)의 성(姓), 또는 성명(姓名) 뒤에 붙인다.

⑨, 양(孃) : 미혼(未婚) 여자(女子)의 성(姓), 또는 성명(姓名) 뒤에 붙인다.

17) 향렬(行列) : 향렬(行列)은 같은 혈족(血族)사이에 세계(世系)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위하여 마련

된 것으로서 이는 문중율법(門中律法)의 하나이기도 하다. 향렬자(行列字 : 돌림자)는 가문(家門)마다 각기 달라서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의 천간(天干 = 十干) 순에 의하여 설정한 가문도 있고,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지간(支干 = 十二支) 순으로 설정된 가문도 있으며, 일이삼사(一二三四) 수자(數字) 순으로 설정(設定)한 가문도 있으나,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의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에 따라 시행하는 예가 가장 많다 하겠다.

평산신씨 문중에서는 현재 오행상생법(土金水木火)으로 시행한다.

신익희 선생 연설문 일부

1956년 5월 3일 한강 백사장 연설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한강 모래사장에 가득히 모여 주신 친애하는 서울시민, 그리고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해방이 되기 전에 약 30년동안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한 사람의 하나로 오랜 시간 외국에 떠돌며 본국 안에 살고 있는 부모 형제, 자매, 동포, 동지들이 그리워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한숨짓던 사람입니다.

오늘처럼 많은 우리 동포, 동지들과 이런 한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대하고 보니 그 감개무량함은 무엇에 비할 데가 없습니다.

더욱이 6·25사변 때 한강 철교가 폭파되는 바람에 피난의 고초를 당하여 우리 전국 남녀 동지들의 가슴속에 깊이 박힌 원한의 이 한강 백사장에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40년 동안 우리 동포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온 나라가 독립의 열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라고 바라던 독립된 국민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찾은 지도 벌써 8년이나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무조건 항복이 있는 지 어언 10년이나 되었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지도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동안 매일 같이 여러분이 몸소 겪고 지내왔으니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꼬락서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40년 동안 밤이나 낮이나 원

하고 바랐던 독립이었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꼬락서니가 결코 우리가 바랐던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만사가 이유 없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해답은 분명합니다. 나랏일을 책임지고 하여야 할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현 정권입니다. 나는 현 정권이 크게는 헌법을 위시해서 큰 법률, 작은 법률을 불문하고 제대로 지키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인간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짓인지 짐승이 하는 짓인지 구별도 못 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입니까?

국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어리석은 생각일지는 모르나 평소 믿고 있는 몇가지의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신익희라는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대통령의 후보자로 지명받은 사람이니, 앞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고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지지하고 찬동해서 많은 표를 던져주어야 당선되어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 되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우리나라가 잘살려면 이렇게 해야 잘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으니 여러분은 한집안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걱정하고 의논하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저는 인간 세상에서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방법은 도의와 도덕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찾고자 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말하자면 살아가는 동안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남에게도 뒤에 떨어지지 않게 잘 살아가자는 것이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선 먼저 사람다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양심, 정의, 정직, 책임이 오늘날 그 사회가 요구하는

덕목이라면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행세하여야 할 터인데 오히려 오늘날 이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행세를 못 하게 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심을 떼서 선반에 올려놓고, 얼굴에다 강철 쪽박을 뒤집어쓰고, 사람을 속이며, 거짓말하고, 도적질 잘하는 자들만이 잘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앞에서 말한 자들이 활개치며 나가도록 놔둔다면 아마 우리는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는 다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옛날과 달라서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제일이요, 백성이 주장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백성의 나라입니다. 이 백성의 나라는 옛날 왕조 국가와 다른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황제의 말 한마디가 법률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모가지를 자르는 때도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죽일 수 없습니다. 요새 특명이다, 명령이다, 유시다 하는 것같이 공공연히 집권자들이 권력을 남용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명령이나 특명은 법률을 못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므로 다 똑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법치국가라는 말을 하기가 나부터도 가슴이 쓰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그물에 비유하면 커다란 독수리 같은 특권층은 물론 까막까치, 제비까지도 모두 꿰고 나갑니다. 불쌍하게도 법률이라는 그물에 걸리는 것은 오직 파리나 모기 같은 우리 서민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도덕과 도의를 높여서 큰 법률, 작은 법률 가릴 것 없이 다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선진정치 시사전문지 “해공정신” 2024 겨울호에서 발췌]

인사

▶ 대중중 문화국장 임용 申鉉基(정언공파 33世孫)



- 1950년 12월 17일 생
- 중학교 수학교사 2년, (주)코스콤 연구개발 부장·임원 24년, (주)베스트아티티 대표이사·사장 12년
- 대중중 총무국장 4년
- 임용일자 : 2024년 12월 16일

2024년도 하반기 전자대동보 수단 접수 현황

2024년도 후반기에 대중중에서 접수한 수단 신청
현황과 각 파종중별 수단비 배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총 접수 인원 : 20 명
2. 수단비 총액 : 742,000원
3. 배분내역 대중중 30% : 222,600원
파종중 70% : 519,400원

연 번	파종중	접수 일자	수단자 성명	인원	수 단 비 (단위 : 원)	배 분 금 (단위 : 원)		비 고
						대 중 중 (30%)	파 중 중 (70%)	
1	문화공파	11. 8	현도	2	20,000	6,000	14,000	
2	정언공파	7. 2	광철	3	161,000	48,300	112,700	
3	사간공파	12.24	동식	3	135,000	40,500	94,500	
4	제정공파	8.28	상운	2	86,000	25,800	60,200	
5		8.28	동수	3	130,000	39,000	91,000	
6		11.26	동남	2	60,000	18,000	42,000	
7		11.26	동음	3	90,000	27,000	63,000	
8		11.26	무섭	2	60,000	18,000	42,000	
소 계				12	426,000	127,800	298,200	
총 합 계				20	742,000	222,600	519,400	

※ 수단 배분금은 각 파종중 계좌로 입금

종보 성금 보내주신 분 (2024. 10.21 ~ 12.31)

성금을 보내주신 종원님께 감사드리며,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시 · 도 화수회			
전라북도화수회	100,000		
소 중 중			
진주화수회	100,000	해남군화수회	100,000
사간공파 병사공종중	50,000	제정공파 한들종중	50,000
개 인			
현대 (제정 경기 일산)	100,000	현진 (사간 서울 서초구)	100,000
정철 (문화 인천 남동구)	100,000	현택 (밀직 서울 도봉구)	100,000
연식 (밀직공파종중 고문)	60,000	현균 (세종시)	50,000
남철 (충남 서산 고북면)	50,000	영식 (사간 경기 가평)	50,000
계철 (未詳)	50,000	未詳 (제정공파종중 울산)	50,000
상운 (부산경남화수회)	50,000	광섭 (부산 북구)	30,000
완섭 (온수감 서울 구로구)	30,000	윤철 (인천화수회 대부도)	30,000
홍식 (경북 문경시 호계면)	20,000	현호준 (서울 구로)	20,000
석준 (서울 구로)	20,000	현재 (정언 서울 용산구)	20,000
인호 (서울 구로)	20,000	광섭 (문화 대전 중구)	20,000
현우 (정언 서울 도봉구)	20,000	상근 (사간 대전 중구)	20,000
삼식 (문화 경기 위례)	20,000		

총 계 : 1,430,000원

2025년 1월 ~ 4월 행사 안내

- 2월 4일(화) 결산감사
6일(목) 장학 · 상벌위원회
19일(수) 정 · 부회장 및 감사회의
3월 5일(수) 222차 상임이사회 (서울 종로구 한일옥)
13일(목) 제례 · 계보위원회
19일(화) 덕양서원 춘향제 (음력 2월 중정일)
26일(수) 평산신씨대종중 정기총회
(11시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31일(월) 춘천 신승검 장군 춘향대제(음력 3월3일)
4월 5일(토) 제정공파종중 향사 · 표충재 향사(한식일)
6일(일) 승의전 향사(4월 첫째 일요일)
8일(화) 울리사 · 경백사 향사(음력 3월 중정 일)
27일(일) 전서공파종중 향사(4월 끝 일요일)

〈종보 배부 기준 및 성금〉

- ★ 파종중·시·도화수회 : 50부 년 100,000원
- ★ 소중중·시·군·구화수회 : 20부 년 50,000원
- ★ 종 원 : 1부 년 20,000원

* 종보가 부족할시 10부당 성금을 20,000원 추가함.

종 보 성 금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중중)
농 협 301-0202-9520-11 (평산신씨 대중중)
전 자 대 동 보 : 하나은행 027-766111-23504 (평산신씨 대중중)
우 리 1005-103-123259 (평산신씨 대중중)
구 독 신 청 : 02)776-6111 .776-6151

▶ 계좌 송금시 :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

바로잡습니다.

종보 203호(2024.10.30)의 6쪽
표 (용산단 성금 및 화환 헌성자)

- 추가 : 신행수(부산) 10만원
- 수정 : 신영순(서울 마포) 10만원 ⇒ 50만원

종보 구독, 주소변경 : 02-776-6151, 6111



謹賀新年



을사년(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乙巳元朝

大宗中會長：澈秀

名譽會長：相式
顧問：興均
顧問：鉉德
顧問：日淳
副會長：鳳湜
副會長：東夏
副會長：東鮮
監查：權彩
密直公派會長：東旭
文僖公派會長：鉉晚
溫水監公派會長：相雨
貳相公派會長：成澈
監察公派會長：海澈
郡守公派會長：權彩
德陽書院宗中會長：東珍
京畿道花樹會長：鉉晚
大田·忠南花樹會長：民澈
釜山·慶南花樹會長：昌烈

名譽會長：甲湜
顧問：鉉銖
顧問：璇澈
顧問：東振
副會長：文澈
副會長：東錫
副會長：龍澈
監查：民澈
掌令公派會長：鉉茂
漢城尹公派會長：亨湜
齊靖公派會長：亨燮
判事公派會長：城和
判尹公派會長：城澈
龍山壇宗中會長：龍煥
서울市花樹會長：正龍
江原道花樹會長：大秀
光州·全南花樹會長：士鉉
濟州花樹會長：東範

名譽會長：吉淳
顧問：鉉採
顧問：光淳
顧問：東銀
副會長：亨湜
副會長：鉉大
副會長：尙燮
監查：鉉晚
縣令公派會長：豪均
思簡公派會長：東夏
典書公派會長：東錫
進士公派會長：彪均
參判公派會長：起澈
表忠齋宗中會長：東鮮
仁川市花樹會長：重均
忠北花樹會長：梔澈
大邱·慶北花樹會長：東夏

[大宗中]

總務局長 垂澈

文化局長 鉉基

經理部長 朴兌晞(外孫)

春川墓域管理所長 鉉睦

[代議員]

密直公派：敬熙 成煥 在哲(50生) 在澈(42生) 東煥 東旭 亨燮 東曉

縣令公派：鎬均 彦琦

文僖公派：景澈 相武 東元 相泰 命植 鼎鉉 東九 晚圭 永鉉 鉉根 蓮湜 圭容 祉容 基亨 鉉滿

正言公派：鳳均 爽圭 莊均 奉均 鉉鎭 相澈 潼規 彦權 東國 七均 熙澈

漢城尹公派：桂萬 光原 載德 承萬 將燮 明澈 貞湜 龍澈



[代議員]

思簡公派：東坤 鉉官 煥澈 東雲 龍澈 東國 祥燮 相吉 有燮 東福 東勳 弘均 榮燮
東日 冠燮 承澈

溫水監公派：忠湜 文湜 彦植 洪淳 東日

齊靖公派：東煥 鉉執 雄均 鉉大 鉉瑀 廷燮 義湜 東必 弘淳 東龍 東天 東完 凱湜
明均 根燮

典書公派：鉉和 鉉益 亨燮 東輝 滿鎬

貳相公派：鉉文 澈澈 逸均 東澈 世均

判事公派：佑燮 榮敦 璿熙 吉鉉 春大 容斗 在鶴 永壽 明鐘 在鳳 孝根

進士公派：正熙 泰昇 鉉東 鉉周 東建

監察公派：香澈 東元

判尹公派：允茂 仁玉

參判公派：七均 浩澈

郡守公派：錫在 判錫

龍山壇宗中：載勳 東彦

表忠齋宗中：昌貴 洪兆

德陽書院宗中：一澈 東坤

서울市(花)：勝澈 喜澈 玟澈 泰熙 東鉉 元泳 大鉉 旼昊

仁川(花)：壽均 鉉 鉉淑

京畿道(花)：光鉉 永喆 東湜 鉉直 佑鉉 東澮 秀澈 定澈 基奉

江原道(花)：根澈 長淳 國澈

忠北(花)：東源 勉淳 相澈

大田·忠南(花)：基澈 東植 弘鉉, 光燮

全北(花)：東烈, 成湜, 炳澈

光州·全南(花)：東植, 昶日, 東吉 興燮

大邱·慶北(花)：東一 相敦 鉉宗 東郁 東雨

釜山·慶南(花)：相領 原周 相圭 東述 在澈 判湜 大澈 成哲

濟州道(花)：永澈 永敏

[分科 委員會]

祭禮·系譜委員會：文澈(委員長) 大秀(副委員長) 佑鉉 彦琦 廷鉉 根澈 義浩 長淳 國澈 東元
聖浩 和燮

獎學·賞罰委員會：東範(委員長) 光燮(副委員長) 雄均 鉉鎭 在澈 香澈 明澈 東完 東建 東珍

編輯·宗規委員會：東錫(委員長) 弘鉉(副委員長) 七均 士鉉 鉉祐 喜澈 貞湜 益淳 浩澈

財產管理 委員會：東鮮(委員長) 鉉和(副委員長) 彦權 昌貴 龍澈 尙竣 東元 東天 憬燮 亨燮